48~49 옛다리-9 1904.1.3 9:33 PM 페이지48

안양만안교전경

안양 만안교

만안교(萬安橋)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679에 자리잡고있다. 이곳은삼성천 주변의마을로조선시대에는석공이많이산다 하여 '석수동(石手洞)으로 불렸다. 만안교와만안교비도이석공들에의해만들어졌다고한다. 그러다가1930년대초마을앞에 수영장이생기면서석공들이하나둘씩 떠나 '석수동(石水洞)으로불리고있다.

정조의 사도세자 능 참배 길

만안교의원 위치는 지금 있는 곳에서 남쪽으로200m 지점이었다. 1980년8월국도 확장공사로인하여현위치로옮겨세웠다. 이 다리는 조선 정조가 사도세자의 능을 참배하러 가기 위하여 가설한 다리로 정조19년(1795)에건립되었다. 정조는효성이지극하여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양주에서수원화산(華山)으로이장한뒤 능을 자주 참배하며 원혼을 위로하였다고 한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참배하러 가는 정조의 참배 행렬은 대단하였는데 그 행렬이편히건너가도록축조한다리이다.

당시 정조의 참배 행렬은 궁궐을 떠나 노량진 과천 수원등을거치는것이빠른길이었으나그길가에사도세자의처벌에적극 개입하여정조가원망하는김상로의형김약로 묘가 있었다. 이런까닭에 시흥, 수원 쪽으로행로를택하면서안양천을경유하게되어 만안교를 축조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나무로 다리를 놓아 왕의 행렬이 건너도록 하였다고한다. 그러나, 왕의행렬이편안하게 다리를 건너지 못하게 되자 당시 경기도 관찰사 서용보(徐龍輔)가 돌로 이를 대체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1795년 경기도 관찰사 서유방이왕명을 받들어 3개월의공역끝에다리를완성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금천현조(衿川縣條)를 보면 '만안교는 남쪽으로 10리에 있는데 안양천에서 수원으로 통하는 대로에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만안교축조이전에안양교라는다리가기록되어있는것으로 보아원래부터다리가있었음을알수있다. 이후에새롭게다리를건설하면서 만안교라고 하였으며, 안양교라고도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홍예식 석교

만안교는 조선 후기에 축조된 대표적인 홍예식 다리로7개의홍예식 수문을 만들어 물이 빠져나가도록 정교하게 축조되었다. 현재서울중랑천에남아있는살곶이다리와는 다르게 정교한 홍예식 수문을 만들었다. 조선전기에만들어진석교보다는발달된토목기술을보여주고있는것이다.

교량은길이34.8m, 폭7.8m로 당시토목기술로는 상당한 규모의 석교였다. 물은 북쪽에서남쪽으로흐르는데물이흐르는북쪽

만안교비.

48~49 옛다리-9 1904.1.3 9:33 PM 페이지49

바닥에는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 장대석형의 바닥돌을 깔았다. 그리고 홍예를 세우기 위해바닥에는 규모가큰기반석을놓았다. 특히, 물이 흘러 들어오는 북쪽에는 앞부분을 삼각형형태로돌출시켜물의흐름을원활하게하는역할을할수있도록배려하였다. 기반석은 토사로 인해 10 20cm 정도만노출되어있다. 홍예식수구는중앙을제일 크게하고, 양쪽으로갈수록좁게고안하였다.

중앙홍예는홍예돌11석을활용하여강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정교하게 치석하여 결구하였다. 홍예의 규모는 가운데부터 너비 380cm 높이 330cm, 너비 355cm 높이 273cm, 너비 335cm 높이 237cm, 너비 315cm 높이215cm이다. 홍예이외의부분은직사각형으로활석한돌을정교하게끼워 마감하였다. 답도(踏道)는 가운데와 다리의 가장자리 부분에 세로로 장대석을 놓고 그 사이에 대칭 장대석을2열 횡대로 가지런하게 놓아 마무리하였다. 답도의가장자리 세로로놓인장대석에는일정한간격으로사각형의구멍이있는데이것은건립이후철(鐵)로된난간을시설하였음을알게해준다.

전체적인 다리의 축조 수법이 창덕궁에 있는금천교와유사한수법을보여주고있으며, 축조수법이정교하여조선후기의대표적인홍예석교임을알수있다.

만안교비의 귀부와 송축 비문

만안교비는만안교가현재의위치로옮겨 세워질 때 같이 이전된 석비로 만안교 건립을 기념하기 위한 사적비이다. 만안교비는 귀부와비신, 가첨석을갖춘조선후기의전형적인 석비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석비의 전체높이는 311cm이며, 비신의규모는165×65×33cm이다. 귀부(龜趺)는 한 돌로 마련하였는데 판석형 2매의 지대석을놓고 올려놓았다. 하부에는다시높이15cm 정도의 받침을 귀부의 형태에 따라 마련하였다. 귀부는 발가락이 4조(爪)인 다리를 웅크리고 앉아 있는 형태이며, 꼬리는짧고 오른쪽으로휘어져있다. 귀갑은무늬가없지만귀갑위를 다시 꽃무늬 형태로 돌리고 모서리 부분을 오메가형으로 장식하였다. 특히, 주목되는부분은구두(龜頭) 부분인데목에비늘이 있고 약하게 견갑이 표현되어 있으며 뿔형의귀를달았다. 머리위에는길게날개형으로 머리칼을 늘어뜨리고 있으며, 도깨비처럼 불쑥 튀어나온 눈과 양쪽으로 나온 이빨, 둥글게과장된코등은조선후기가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는 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즉, 거북이나용의머리가아닌상상의동물을과장되게표현하여비신을 사악한것으로부터보호하려는의미를강하게상징화시켜놓았다.

비신은 전면인 동쪽 면에 ‘萬安橋’라고 음각되어 있으며 각자된 글씨 안에는 붉은 색칠이되어있다. 후면에는만안교의공적과 관련된 내용들이 음각되어 있고, 측면에는 만안교 건립 연월일과 축조 공사에 참여한사람들의명단이기록되어있다. 비신상단부는 파손이 심하여 판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비문의 주요 내용은 화성으로 가는 도중에안양천이있으므로석교의필요성을느낀 신하가공사착수3개월만에준공하자정조가 만안교라는 이름을 내렸다는 것이다. 만안교라고 다리 이름을 정한 것에 대해서는 “왕의 어가가 방울을 울리며 편안히 다녀오기를 만년을 한결같이 기원할 때 하천에서 다리에 쓰일 돌들이 나와 경비를 절감하여 신이 도왔으며, 만년을 만안하고 천년만년 편안하기 반석과 같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있다.

그리고 갑문(閘門)이 5개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실제로갑문이7개였던 것으로보아오기로 보인다. 비문은 경기도 관찰사 서유방(徐有坊)이글을짓고조윤형(曺允亨)이썼으며, 전면의 글씨는 유한지(兪漢芝)가 썼음을알수있다. 비신의상부는팔작지붕을번안한 가첨석을 올려놓았는데, 마루 부분을 높게 하여 마무리하였다. 가첨석도 귀부처럼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만안교비문을번역해보면다음과같다.

만안교 건립을 송축하여 비를 세움. 남충현(南充縣) 주치(州治) 남쪽 20리에 안양천이 있는데바로화성(華城)으로가는연로이다. 우리 성상(聖上)께서 해마나 원침(園寢)을 전알(殿謁)하려면 이 하천을 건너게 된다. 올 봄에도 자가(慈駕)를 모시고 이 내를 건넜으니 이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무릇 행행지(幸行地)는 하천이 있게 마련이고 하천마다 다리가 있게 마련인데 이들 다리는 나무로 놓였다가 왕의 행행이 지난 뒤에는 바로 철거하였다. 이런 까닭에 얼음 풀릴 때나 장마가 질 때에는 물을 건너는 사람들이고생을하였다. 전도신(道臣) 서용보가 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돌로써 대체하려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다가 미천한 신이 명을받고취임하여맹추(孟秋)에이일을착수하여 3개월 만에 준공하니 길이는 15장이요, 폭은 4장이며, 높이는 3장이고 갑문(閘門)이 다섯 개다. 임금께서도 이 일을 아시고는 감독하는 사람과 공장(工匠) 에게 차등 있게 상을 내리고 특별히 만안교란 이름도 내리셨다. …(중략)… 이로써 만만년초록 성은을 입게 되고 자덕(慈德)을 기리게 되었으니 어찌 참으로 융성한 일이 아니겠는가.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 하천가에서 돌을 채벌하였는데 과연 돌이 나와 경비를 반감할 수 있어 마치 신이 도운 것 같았으니 이 또한 기이한 일이다. 신은 배수계수(拜手稽首)하고그일을기록한다.

송(頌)은다음과같다.

왕께서해마다한번씩원침에행행하시오니 이 다리 건너시길 만 번을 하시옵소서. 복록과 함께이르게되니아래에는 천(川)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가를 모시고 만안(萬安)하소서. 은혜가 백성에 미치니 마음놓고 건넘에 환성을 올리도다. 천년만년편안하기 반석과 같도다. 정조 19년 9월에세움.

손광섭
광진건설대표 · 청주건설박물관장